

2018
해외 전문가 초청
콜로키움

우리가 원하는 교육·보육,

마을 안에서 공감하고 협동하며 성장하는 아이들

2018. 12. 18 (화)

목 차

1. 격려사	
1-1. 조희연 서울시특별시 교육감-----	7
1-2. 유 용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9
2. 여는말 -----	13
“평등에서 출발하자”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3. 해외 전문가 발표	
3-1. “교사가 주인인 협동조합 학교 GSD”-----	19
Jorge de la Calle, 스페인 GSD 국제교류전략총괄국장	
3-2. “사람이 크는 포괄적·공생 교육(Inclusive Educare)” --	31
노지마 치에코, 일본 로코관 교육보육참사관(전 성애원 원장)	
4. 국내 사례 및 토론	
4-1. 우리가 원하는 교육·보육 정책 대안 모색 -----	65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 세상 고문	
4-2. 교육기관 공공성강화 방안-----	69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4-3. 한국과 서울의 학교협동조합 현황, 스페인 협동조합 학교 GSD가 주는 시사점	
주수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73
4-4. 보육과 교육의 시장을 넘어 상상하는 돌봄 공동체의 내용과 형식	
하태욱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교수 -----	78
4-5.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에 대해 -----	83
최 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격 려 사

조 희 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교육·보육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감사드리고,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들의 사례를 경청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확보라는 명제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론을 통해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일이 지난 촛불이후 더 높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에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사립유치원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유아교육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만, **이제는 유아교육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혁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과 해당 단체의 대승적인 양보와 협치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지난 10월 30일 가장 선도적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에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치원 신설, 기존 학교 시설 적극 활용, 공영형 유치원 선정·운영**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강화하면서 공립유치원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혁신 모델**입니다. 공영형 유치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사인유치원은 법인 전환 필수)에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공영형 유치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5.4%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많은 반대가 있었으나 향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는 유아교육정책입니다.

또한, 공영형 유치원 운영과 더불어 심도 있는 검토와 과감하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해 일정 조건을 갖춘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하거나, 학부모가 자생적으로 조직한 사회적협동조합형유치원 운영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공립유치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치의 시대에 조응하는 유아교육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논의될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모델입니다.** 유치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부모협동조합 모델인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오랜 역사가 있어 왔고, 스페인이나 독일 등에서 이미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부모협동조합이 결합한 어린이집인 산마루 어린이집의 사례도 있고, 우리에게서 노원의 꿈동산 유치원이 학부모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한 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모델을 만들어 제 3섹터의 유아 교육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교육은 교육의 처음이자 사회생활의 첫 걸음이기에, 자유롭게 놀면서 사회를 익히고 배우는 유아교육을 정착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적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되는 사항들이 긍정적으로 현실화되어 국민들이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유아교육·보육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격 려 사

유 용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 용 입니다.

매서운 겨울 한파가 이어지는 중에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교육·보육, 마을 안에서 공감하며 협동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콜로키움에 뜨거운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콜로키움을 주관하신 이은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요즘 일부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아동학대 문제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사악한 논리에 매몰돼 공적영역인 보육과 교육을 이익추구의 대상으로만 보는 몰지각한 행태도 여전합니다.

저는 평소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회복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보육·교육에 대한 시민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시의회가 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은 지역사회 중심인 학교가 지역공동체 활동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와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는 보육·교육 협동조합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소통과 타협,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사례발표를 해주실 스페인의 GSD와 일본의 성애원은 앞으로 한국에서 학교와 보육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이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과 개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는말

평등에서 출발하자

장 하 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회를 계기로 스페인의 그레도스 산 디에고 협동조합을 알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토론자이신 주수원 정책위원께서 한겨레에 기고하신 글도 읽었습니다. 1985년에 18명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했고, 총 1,500명의 교사·행정직원 중 1,200명이 조합원으로 학교의 공동주인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200명의 조합원 중 교사 대 행정직원의 비율은 몇 대 몇인지? 그리고 행정직원 외 청소노동자, 조리사 등 교직원 중에는 조합원이 없는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되는데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은 어떤지? 무려 일일 17시간씩 운영함에 있어 조합원 내부의 반발은 없는지? 등등

한국은 학교노동자의 약 40% 비정규직로 교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이점이 아이들에게 그릇된 노동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SD의 사례가 ‘교사가 주인인 학교’로 소개되기 보단 ‘학교노동자가 주인인 학교’로 소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름지기 협동조합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가 자유로운 열린 학교를 지향하되, 참여를 의무화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공동육아어린이집이나 새로이 거론되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부담과 참여의 부담입니다. 제 자신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온전히 맡겨야 하는 가정의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참여는 선택이어야 하고, 들고 남이 모두 자유로운 열린 구조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GSD의 학교들이 아침 6시부터 운영하는 이유가 맞벌이 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등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라니, 아이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고마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 GSD에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의 어린이집 종일반은 아침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일일 12시간 운영하면서도 1~7세 영유아에게 점심식사와 오전·오후 간식을 주는 게 전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만든 운영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방과 후 활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부럽습니다. 한국의 (정규직)교사·교직원들은 학교 안으로 수업 외 기능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데 GSD 학교는 정반대라서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다른 학교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학교라는 공간은 공공의 영역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교사 편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화가 날 때도 많습니다. 이미 학교의 주인은 교사 같을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학교가 폐쇄성을 띄니까 정부 및 지자체는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GSD의 사례를 보면서 학교의 공공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에는 통합교육팀이라는 정책소모임이 있습니다. 통합교육이 최고의 인권교육이라는 약 1,600명의 회원 중에 22명이 통합교육팀에 자원하여 활동 중이고, ‘장애-비장애 경계 넘기’라는 이름으로 지난 가을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통합보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영유아 시기에 함께 지낸 적 없는 장애-비장애 아동들이 통합교육을 하는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나서 생활하게 되는데, 장애인 학생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통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이들이 어릴수록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도우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유아기에 통합교육(보육)을 받게 하면 초등학교로 진학해도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애원의 사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꿈꾸는 유아교육·보육의 모습과 닮아있고, 성애원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사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상상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현실은 아직 어둡습니다. 장애 전담 유치원·어린이집이 드물기도 하거니와 장애 전담으로 지정받고도 장애아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울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수가 궁금합니다. 전체 장애 영유아의 몇 퍼센트가 기관에 다니고 있는지, 장애 영유아의 교육권·보육권이 지켜지고 있는지부터 서울시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벌어진 ‘강서구 특수학교 사태’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수학교 18개소 신설을 약속한 점은 바람직하나, 그 중에 딱 한 곳만이라도 ‘진짜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를 만들어 볼 수는 없는지 제안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습니다. 평화로운 공존 대신 특수학급에 대한 차별을 가르치지 않는 현행의 통합교육 말고 인권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시민의 자발적 영역에만 맡기지 말고 필요할 때는 관이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GSD와 성애원은 참 멋진 사례들이고 이렇게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활동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실천으로 교육과 보육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전체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변화를 모색하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서울 소재의 학교와 어린이집에 GSD와 성애원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어떻게 도입할 지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33년, 45년 이후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한 말씀 드립니다. 행사명에 ‘콜로키움’이라는 매우 생소한 단어가 쓰인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번 행사명을 접하는 순간 전문가와 학자들만을 위한 행사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 저 또한 평범한 서울시민으로서 배려 받지 못한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쉬운 말이 좋은 말이 아닐까요? 대다수 시민이 모르는 단어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GSD 에듀케이션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변혁;
함께 창조하기

GSD



협동조합,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



협동조합은 무엇인가?



협동하다

은행 은퇴자 요양원 교육



우리는 세상을 단순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Jose María de Aritzmen diarrieta



공동의 프로젝트





함께 꿈 꾸기







에듀케이션 360°



협동적인 학습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프하이젠
Friedrich Wilhelm Raiffeisen





감사합니다

「사람을 크게 키우는 인클루시브 교육」

사회복지법인 로코관
유보연계형 인정 어린이원 성애원
교육보육담당참사 노지마 에치코

1. 들어가며

지금부터 제가 소속돼 있는 성애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제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표 -1)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제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표-1) 일본의 유아교육·보육 제도

	유치원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
소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교육·보육 의 기준	유치원교육요령	보육소보육지침	보육소보육지침 · 유치원교육요령
맡겨지는 시간	하루4시간 정도	8시간 혹은11시간	1호인정 : 유치원아와 같음 2·3호인정 : 보육소 아동과 같음
연령	만3세 ~ 취학 전 아동	0세 ~ 취학 전 아동	0세 ~ 취학 전(2·3호), 만3세 ~ 취학 전 아동(1호)
자격	유치원교사	보육사	유치원교사 면허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갖는 걸 권장
급식	급식 유무는 유치원에 따라 다름	급식 제공	보육원으로 이용하는 아동(2, 3호 인정)급식 제공이 의무로 규정돼 있음.

2. 교회 부속 유치원이었던 성애원

우선, 보육소 성애원은 오사가 아와지교회가 만든 유치원으로1953년에 발족했
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 유치원이라고 불렀으며 지역에선 ‘엘리트 유치원’
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3. 1972년 최초로 장애 아동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유치원인데 왜 우리 아이는 받아주지 않는 겁니까!」 ……1972년7월,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 두 사람이(구)성애유치원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미 몇 군데 유치원과 보육소를 돌아다녔지만 입소를 거부당한 뒤였습니다. 「아무리 기독교 정신을 이어받은 유치원이라고 해도 가능한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못 본 체 한다면 우리들은 대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등 한 달 정도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토론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봐요. 우리들은 이 아이들을 못 본 체 할 수 없어요.」라는 결론에 이르러, 엘리트 유치원의 이름을 버리고 2명의 ‘자폐증 아이’를 받아들인 것이 1972년 9월의 일이었습니다.

1975년 4월, 성애원은 보육소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장애아들로부터 장애아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육하는 것을 목표로, 또,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보육하기 위해 엘리트 유치원이란 타이틀을 버린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보육소에서의 장애아 보육을 위한 보조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보육이다!!

1977년,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보육이다!」라는 슬로건이 직원들 사이 토론에서 제기됐습니다.

보육소는 아이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입니다. 실제 사회엔 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상 혹시 보육소의 아이들 집단에서 장애아를 배제한다면 이는 아이들에게 ‘거짓’사회를 가르치는 것이 된다, 진정한 보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아와 함께 하는 보육이야말로 진짜 보육’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성애원 보육은 이 슬로건의 내실을 다져가며 장애아와 함께 하는 보육 형태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이 슬로건은 꽤 당돌하긴 하지만 이후 성애원 보육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장애」아 공동보육에 대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성애원」 보육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해진 틀에서 배제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지역 보육 센터」 초대소장(지금은 돌아가셨습시다만) 스즈키 쇼조 선생님은 보육이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가르치고 전하기 전에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보육소 보육에서 소외되어왔던 「심야 보육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야간보육소」와, 지역에 고립된 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지역보육센터」, 원을 졸업한 장애아를 위한 장소로 ‘츠크시클럽 아이들의 집(취학 아동 방과후 활동)’, 장애인의 사회 참가를 돕는 사업인 ‘윌리슈 사업’,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목표로 한 ‘케어 홈’등을 세웠습니다. 로우코우칸의 사업 그 자체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

진 사업들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이든 원점은 「장애」아 공동보육의 정신입니다.

5. 「장애」아 공동보육의 변천

초반10년(1972년~)은 우선 보육사가, 그리고 주변의 아이들이00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장애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과제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아를 중심으로, 당시엔 꽤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학급 중심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10년(1982년~). 아이들 가운데 장애아는 굉장히 평범하게 지낼 수 있게 된 한편, 이러한 장애아의 행동을 주변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의존한, 보육소 안에 한해서는 겉보기엔 ‘괜찮은」「장애」아 공동보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에겐 「장애아가 있으면 모두 상냥하게 변한 겁니다.」라고 말하고 장애아 부모에겐 「비장애아들이 착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라고 말해왔습니다. 장애아를 중심으로 한 학급이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장애」아 공동보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육소 내부에 한한 것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장애원의 보호는 사라지고 자유 선택으로 바뀌지요. 장애아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변의 아이들이 ‘도와주는’일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장애아가 할 수 있는 일조차 주변 아이들이 해버리는 바람에 장애아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아는 비장애아가 모두 해주는 걸로, 그걸로 괜찮아? 」 장애아 스스로 자기주장,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급 보육 내에서 장애아 자신이 과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아가 자기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러면 비장애아는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것은 장애아만의 문제가 아닌, 장애아와 함께 하는 보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일반적인 자기표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10년(1992년~). 「자립(다양성)」과 「공생」이라는, 보육소 입장에선 다소 거창한 과제를 안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에서 ‘나답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었습니다. 장애아를 포함,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자신을 갖는 경험을 축적하고, 자신과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을 보육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장애원에 있어 장애아는 그다지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대 등의 경험이 있는 아이들 쪽이 부모의 문제가 있는 「힘들게 하는」 상태입니다. 장애아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10년(2002년~). 법인으로 민간기관을 받은 「보육소 키타오카 성애원」, 24시간 보육의 「보육소 호우신성애원」, 장애아의 초중고 방과후 지원, 취직 장소, 케어홈 등 「장애아」 공동보육에 대한 사고방식을 넓혀간다는 방침으로 사업을 확장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법인 시설로 머물지 않고 「히가시요도가와 보육플라자」사업과 「등교 및 등원 서포트 사업」 등을 오사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장애아 공동보육에서 인클루시브 교육으로

46년 전엔 장애아를 못 본 체 할 수 없다,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보육을 해온 것들이 사실은 주변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6년 전에 비해 사회는 아이들을 키우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은 장애아를 위한 별도의 시설, 별도의 삶의 방식을 부여하는 것이 장애아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듯합니다. 이 같은 생각과 걸치레, 위선적인 방식은 지금의 알팍한 인간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세상에서야말로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보육이다」-이것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제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 다양한 관점이 탄생합니다. 장애아를 학급의 일원으로 여겼을 때 직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원래 갖고 있던 친절함을 찾아 발현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아이 고유의 특성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도 배워서 「세상이 어떻게든 나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이를 위해 보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아이를 키우는 건 사회적인 것이에요」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또, 이 같은 보육을 통해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선0세부터5세까지 어떤 식의 관계 맺음이 중요한지를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7.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성애 히스토리」의 생각

마지막으로 세계 장애인의 해에도 그랬던 것처럼 「소수의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는 약한 사회」- 우리들은 장애의 유무를 포함해, 여러 사람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40년간 배운 「장애」아 공동보육입니다.

이런 생각은 매년12월에5세 아이들이 보호자 등 앞에서 공연하는 「성애 히스토

리」라는 이름의 뮤지컬에 녹아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20세기, 인류는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격동과 번영 속에서 사람들은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늙고 죽어간다는 몇 만 년이나 이어져 온, 우리 결의 행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나와는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에선 전쟁으로 불타 초원이 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을 만드는 과정이 재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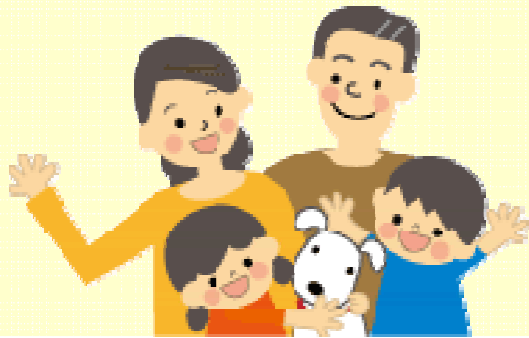
이윽고,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도래하고 점점 아이들이 놀 곳이 사라져 가는 것도 표현됩니다. 아이들이 모여 놀던 공터를 빼앗긴 겁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맡겨진 의미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상해”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주변 환경이지, 어린 시절의 호기심이나 발상은 어느 시대에도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일은 지금도 옛날에도 노는 것입니다. 놀이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상대의 기분을 알아채기도 하며 성장하는 것이지요. 성애원의 공터에선 그런 아이들을 믿고 지켜봐주고 싶어요.

장애아를 받아들이며 깨닫게 된 시점, 그것은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자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 어른도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 같은 관점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자란다」

~ 포괄·공생 사회를 향하여 ~
다양성 안에서야말로 싹트는 힘의 원천



사회복지법인 로코칸
유보연계형 인정 보육기관 성애원
교육보육 담당 노지마 치에코

제1부 일본 아동 보육과 유치원 정책

일본 아동양육 정책 기초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목표

-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
- 시간 외 근무 월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
- 전국 평균시급 1천엔 대로 올리기 위해 연 3%씩 최저임금 인상
- 고령자 고용기업에 보조금 지원
- 보육·간호인력 임금 인상해 인력 확충 유도
- 30만 명 추가 수용 가능한 아동보육시설 확충

일본 유치원 및 보육 체계

	유치원	보육소	인정 유치원
소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내각부
교육·보육의 기준	유치원교육요령	보육소보육지침	보육소보육지침 · 유치원교육요령
맡겨지는 시간	하루 4시간 정도	8시간 혹은 11시간	1호인정 : 유치원아와 같음 2·3호인정 : 보육소 아동과 같음
연령	만3세 ~ 취학 전 아동	0세 ~ 취학 전 아동	0세 ~ 취학 전(2·3호), 만3세 ~ 취학 전 아동(1호)
자격	유치원교사	보육사	유치원교사 면호와 보육사 자격을 모두 갖는 걸 권장
급식	급식 유무는 유치원에 따라 다름	급식 제공	보육원으로 이용하는 아동(2, 3호 인정)급식 제공이 의무로 규정돼 있음

제2부 로코칸의 지역복지에 대해

성애원 유치원의 시작



오사카 폭격 준비중인 미군



미군 폭격 후 폐허가 된 오사카시

성애원 유치원의 시작



1953년, 오사카 이쿠노지역 시민들의 생활복구 과정에서
아동양육 지원 필요로 '성애유치원' 설립

성애원 유치원의 시작



기공식 (1997년 11월)



성애원 유치원의 시작



신원사 건설 (2층 아트트리움)



신원사 완공

지역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 온 성애원

1953년

교회부속 유치원으로 설립.

...당시엔, 기독교 유치원이라고 지역주민에게 불렸고
지역의 엘리트유치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음.

1975년

...보육소로 변신(사회복지법인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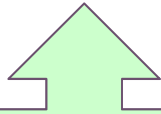
2016년

...유보연계인정 어린이원으로 변신.

지역의 필요에 답하며, 변화해 왔습니다.

「장애」아를 받아들이고..

- 1972년7월、「장애」아 어머니 두 사람이 (구)성애유치원의 문을 두드렸음. 유치원·보육소 몇 군데에서 입소를 거부당한 뒤였음.
- 1개월 가량 직원 간 토론이 벌어졌음.
- 최종적으로、「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 봐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어요.」라는 결론에 도달, 엘리트 유치원의 간판을 버리고 자폐를 가진 2명의 「장애」아를 받아들임.



어려운 입장에 처한 이들을 위해 1975년 유치원에서 보육소로 바꿈.
엘리트 유치원이란 지위를 버리고 보육소가 됨.

「장애」아 공동보육이야말로 보육이다 !

- 보육소는 아이들에게 있어 하나의 사회
- 실제 사회엔 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음. 만약 보육소의 아이들 집단에서 장애아를 배제한다면 이는 '거짓' 사회를 가르치는 것이 되므로 진정한 보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장애아와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보육이야말로 진짜 보육'라는 주장 대두



이후 성애원 보육을 결정적으로 규정짓는 슬로건이 됨

보육과 교육의 본질이란...

- 지역보육센터」초대소장 스즈키 쇼조 선생의 말씀
- 보육이란、「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일상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는 것.)」
- 교육이란、「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가르치고 전달하기 전에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꾸린 끝에 현재 법인 직원 수는 300명이 넘게 되었음.

「장애」아 공동보육 실천의 변화

1970년대	• 장애아 중심의 학급 운영. 장애아를 수용하고 장애아 주변의 일을, 주변 아이들이 돕는 방식.
1980년대	• 초등학교에 진학한 장애아가 수동적인 것에 의문을 품고, 장애아 본인의 자기주장·자기표현 기회를 빼앗았음을 깨달음. • 이런 관점에서, 장애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주장·자기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차원의 관점으로 이어짐.
1990년대	• 「자립(다양성)」과「공생」이란 문제에 대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 안에서 나답게 지금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보육.장애아를 포함, 모든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갖는 경험을 되풀이, 자기와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 알게 하는 걸 보육 목표로 삼음.
2000년대 이후 ~	•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범위를 넓혀, 어떤 형태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모색하던 중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는 곳(사업소)에 대한 운영까지 확대.

장애아 공동보육에서 인클루시브 교육으로

-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가운데, 사실은 주변 아이들에게도, 이것은 중요한 보육이었음을 깨달음.
-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보다 다양한 관점이 탄생함.
- 장애아를 학급의 일원으로 포함시켰을 때 직원들의 포용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연결되고, 각자 가졌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원래 가지고 있던 상냥함이 드러난다는 걸 알게 됨.

현재 사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보육을 통해 연관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회를 꿈꾸는가, 이를 위해선 0세부터 5세까지 어떤 식의 관계 맺기가 중요한가를 지금도 매일 배우고 있음.

성애원 유치원의 시작

- 오사카 지역은 부락천민과 한국인 차별 반대운동이 활발한 지역, 일본 국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아동들의 통합교육 추진
- 1972년 7월, 「장애」아동 두 사람의 어머니가, (구)성애유치원의 문을 두드림. 이미 몇 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입소를 거부당한 상황.
- 약 한 달 가량 직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짐
- 결국, 장애아동 입소 매뉴얼이나 설비 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할지는 모르나 일단 해보자. 아이를 내팽개칠 수는 없다.」는 합의에 이름.
- 이에, 엘리트 유치원의 간판을 떼고 두 명의 자폐 아동을 받아들임. 「비장애아들에게서 (동네 친구인) 장애아동을 분리시키지 말자.」 신념
- 이후 엘리트 유치원에서 지역공동보육소로 전환
- 1976년 사회복지법인 '로코칸' 설립(지역기반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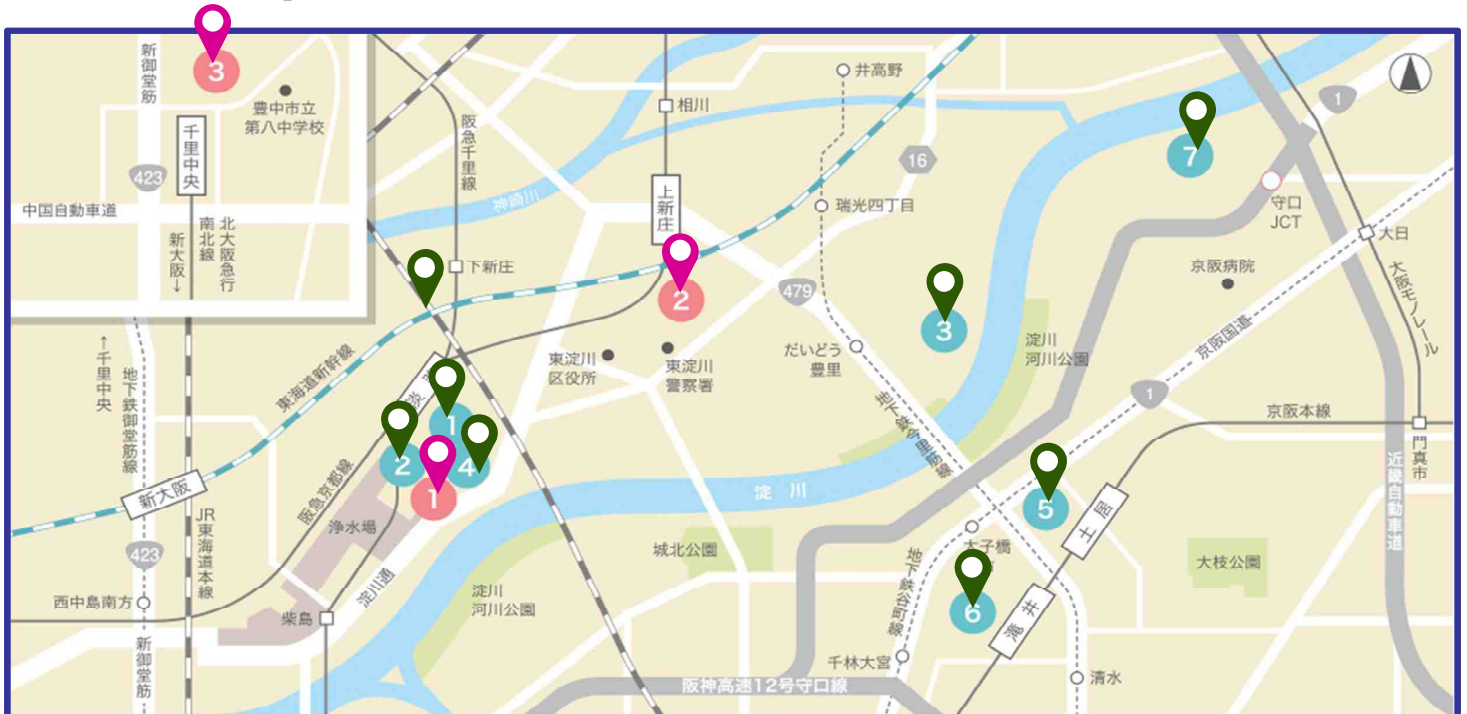


사회복지법인 로코칸의 사업 확대

- 1977년, 「지역 보육 센터」 초대소장 스즈키 쇼조 “보육이란 단순히 가르치고 전하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 성애원이 장애아동을 받아들인 뒤 46년이 흐름.
- 이후 '늦은 밤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야간보육소」, 지역에서 고립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지역 보육 센터」、장애아동의 방과후활동센터 「츠크시 클럽 어린이의 집(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후 활동)」、장애인의 사회 참여 사업인 「월리슈」등 각 장애 관련 사업 외에도 자립을 목표로 한 「그룹 홈」 설립에 이르게 됨.
- 현재 직원 300명의 법인으로 성장.
- 대부분의 사업은 절박한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탄생하여 발전해 옴
- 모든 사업의 원점은 성애원의 '장애아동 공동보육'에서 비롯.



사회복지법인 로코칸의 모든 조직



로코칸과 지역사회 간 연결

1. 사업개요가 곧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들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 내 유치원, 보육소의 입소거부	→ 장애아 공동보육 개시
지역 내 상점가에서 밤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 보증	→ 야간 보육소 설립
지역 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한 부모와 아이들 문제	→ 지역 보육 센터 설립



지역에 있을 곳이 없다면, 홈그라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면 된다는 발상 (소외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

12

성애원의 지역활동

아스나로광장	지역의 보육고립을 막기 위해 놀이, 상담 등의 파트너가 되어 보육 지원 직원과 보육사가 함께 지내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보육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
보육 강좌	- 보육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연 2-3회 부정기 실시)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한다든지, 아이와 잠시 떨어져 작품을 만들며 부모끼리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
센터통신 발행	- 지역보육센터 조직 및 활동내용 전달 - 연 4회 발행
수영장·정원 개방	성애원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과 정원을 개방해 지역의 부모와 아이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지역 축제에 대한 공헌	지역의 부모와 아이들을 포함해 지역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로코칸 축제로 열리던 것을 지역 차원의 축제로 발전

로코칸의 지역활동 전개

후원회 활동	사회복지법인 로코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연계, 발전을 목적으로 ① 재정원조활동, ② 강연회·연구발표 등의 활동, ③ 기관지「후원회 뉴스」의 발행, ④ 동창회 개최 등을 실시
바자회 활동	지역과 함께...라는 시점
그 외	장애인의 청소활동

이 같은 활동에
대한 평가

- 오사카 시로부터...
- ① 히가시요도가와 구(區) 보육플라자 위탁
 - ② 아기방문지원사업, 등교·등원도우미 사업 등 전개

14

제3부 포괄적 보육 및 교육에 대해



성장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제298회 2016년6월20일 방송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곳에 있다」

보육사 노지마 치에코



NHK(일본방송협회)의 취재 이유

1. 왜 NHK(일본방송협회)는 성애원을 다뤘는가.
2. 복지 부문인 야간 보육과 교육 부문의 장애아동 공동 보육,
이 두 가지 역할을 모두 가진 보육시설이기 때문.
3. NHK 취재진은 성애원의 혼합 연령 보육을 실제로 보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둘러앉아 토론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른 곳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4. 한달 반의 촬영. 그 기간 동안 문제 해결 방식을 취재.
5. NHK, "성애원의 보육은 포괄·공생 교육이군요"
6. 이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이기 때문.

장애아동 공동보육 46년의 깨달음

1. 소외되는 이들과 함께 하기.
2. 담당자는 장애아동을 배제하지 않고, 강한 의지와 시선으로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됨.
3. 발달연령으로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할 것 → 혼합연령보육 형태 갖추기
4. 장애아동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다른 아동들의 접촉 방식을 보면, 각자 스스로 관계를 맺어감을 알 수 있음.
5. 이 같은 설정으로 보육을 해 본 바, 다른 종류의 힘이 길러짐
→ 비인지능력(非認知能力)으로 이어짐.
6. 장애아동과 함께 자라는 활기찬 아이들이 부럽다고도 느낌.
→ 혼합 연령 보육의 내용

25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보육에서 싹튼 혼합 연령 보육

<3-5세 아동의 혼합 연령 보육 어린이 집단>

- 자신과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30명인 한 반에 네 개의 소그룹을 둔다. 7~8명 규모의 소그룹 리더는 5세 아동에게 맡겨 관계를 형성시키도록 한다.
- 자신들이 정한 것을 실행해 성공하면 이것이 자신감으로 이어짐.
- 초반엔 '담당자가 이 소그룹 편성을 왜 만들었는가'를 이야기한다.
- 좋은 부분은 키우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함
- 담당자는 이 소그룹을 지켜보고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 경우 돕는다.
- 초반에는 소그룹 자립을 목표로, 후반에는 5세 아동이 앞에 서면 3세 아동이 고르는 방식으로 소그룹을 만든다.

26

성애원의 혼합 연령 보육



혼합연령보육의 발상, 「공터」로부터

혼합연령보육의
강점



3세가 4, 5세의 행동을 볼 수
있음. 관찰은 환경에서 큰 부분.

5세를 소그룹의
리더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감.

보육사는 지켜보며
도와줌



특히「꼭 해내야 하는 아이」(성실한 아이)에 대한 배려.
「힘들어」라고 말해도 좋음.
'해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

성애원의 혼합연령보육이 연간 목표로 삼고 있는 부분

- '내가 좋아' → **자존감**
- 나와 다른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아이 → **다른 이에 대한 존중**
- 스스로의 힘을 믿는 아이 → **목표를 이루기 위한 협력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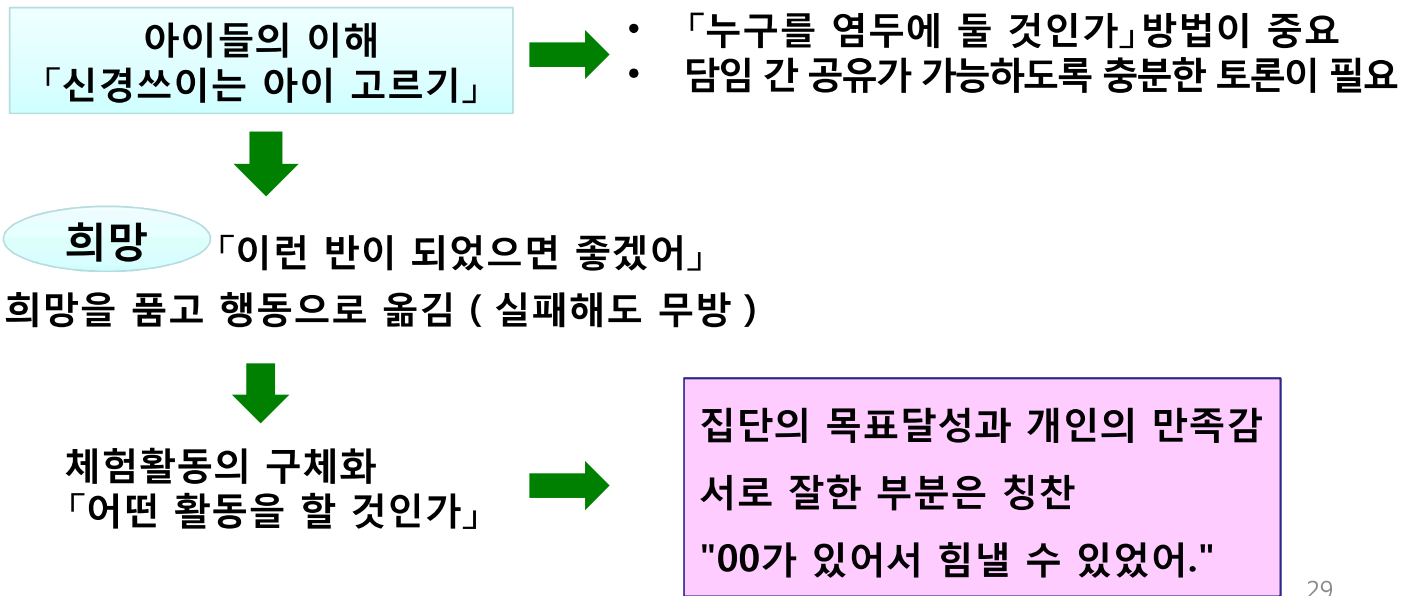
27

영상①...급식실을 정하자



성애원의 혼합 연령 보육

혼합 연령 보육 반 만들기



29

리더의 경험은 자신감으로 이어진다

1. 자신 외 사람을 인식하게 됨 → 타인을 의식
2. 5살은 3살 동생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게 됨
→ 목소리가 작은 아이에게도 귀를 기울임
3. 3살 때부터 5살 리더를 보기 때문에 계속 동경을 갖고 보게 되고
따라하려고 함. 롤 모델이 됨.
→ 선망의 대상 (5살 아이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자긍심)
4. 최소단위는 7-8명이 하나의 소그룹. 결정된 것은 존중하고
이를 실행해도 좋다는 과정을 경험함.
→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배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의지가 되는 기분을 느낌.

5살 아이는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다!

30

5살 아이들의 노세켄피야마(784m)등산



12/17/2018

31

노세켄피야마< 7 8 4 m>정상



12/17/2018

32

지역사회 교류 활동



경로의 날 행사



고교생과 문화예술제

운동회



운동회의 그룹 대항전



협력해 나가는 아이들



혼합연령보육 조직 - 문짝 오르기



37

반 대항 계주



내 할 일은 최선을 다해 !



A군은
나에게 맡겨 !

38



네가 바통을 들어~!
내가 달릴테니까!!

저도 1등 하고 싶어요!



39

해냈다~!!

1 등



12/17/2018

40



41

장애아 공동보육에서 포괄·공생 보육으로

- 장애아를 중심으로 돌봐왔지만 최근 20년 가량은 결코 장애아가 배제되지 않음
- 예를 들어,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 등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아이가 늘고 있음
- 다양한 사정이 있지만 매일 함께 지내는 아이들,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유치원 안에서 반 안에서, 연령별 무리 안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 지금까지의 장애아 공동보육처럼 장애아동이 돌봄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내세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느낌
-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답게 살아가기,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의지하기
- 이런 것들에 비춰 '우리는 포괄·공생 보육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됨.

포괄·공생 보육은, 최종목표가 아니다



과정이 중요!

혼합 연령 보육으로 자라나는 힘은 비인지능력

- 40년 간의 조사에 따르면 유아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여겨짐
- 비인지능력이 재평가돼 2020년에 학습지도요령이 전면 개정됨
- 스스로의 기분을 컨트롤하는 능력
-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목표를 이루는 것
- 대인관계가 뛰어난 것 등



성애원 아이들의 비인지능력

- 아이의 사회적 기술 평가 면에서 성애원의 아이들은 객관적인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항목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를 받음
 - ① 「누군가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할 수 있어요」
 - ② 「스스로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요」
- 또, 「심하게 짜증내지 않아요」 면에서도 전국 평균 이하임.
→ 직원은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면서 기분 좋게 '나 다운 면'을 발휘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비인지능력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임을 객관적으로 증명받음!

영상② . . . 보물찾기



'보물찾기'의 본래 의도는...

- 2016년6월20일 방송한「NHK 프로페셔널 직업의 정석」
- 즐거운 놀이지만、목적은「집단 만들기」
- 낙오되기 쉬운 아이를「잘 챙기기」위한 구성
- 보물찾기 놀이는 사회의 축소판。
- 「리더를 믿고 따르기」「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기」「리더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됨」「다른 의견을 말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등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



「집단 만들기」 = 미래사회를 만드는 일

47

마지막으로...

- 아이는 주변 어른, 아이를 보며 배우고 어른, 아이 모두 아이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존재.
- 보육은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듣는 일. 교육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 보육소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부모와 보육사가、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면 좋을지 생각하는 공간.
- 세상은 거대한 용광로. 혼합 연령 보육은 성인 사회 그 자체. 사회의 축소판이자 인간관계의 축소판이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유소년기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일이 필요함.
- 다양함 속에서야말로 자라나는 힘의 원천이 존재.
- 아이는 우리의 희망. 포용 공생 사회를 위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맡기는 것.

48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가 원하는 교육·보육 정책 대안 모색

김 영 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

1. 사회적 협동조합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하여

본 콜로키움의 주제 발표에서 다루고 있는 협동조합 학교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보다 향상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 개인 위탁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

사회적 협동조합을 먼저 구성하여 위탁 운영하는 형태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인 위탁의 경우 지자체가 설립하여 개인에게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현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과 맞벌이 가정이 많은 부모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운영 방안이 마련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성남시의 7개 어린이집과 노원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육아에서도 기존의 운영 형태와 유사하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곳이 다수라고 알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개인 위탁을 1년 6개월 내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

3. 사회적 협동조합의 위탁 운영 형태

- 1) 자발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국공립 위탁 운영
- 2) 현재 개인이 위탁 운영하는 경우 향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운영
- 3) 개인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되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조건 제시(성남시 모델)

4.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 시 유의점

1)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을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어린이집 내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공존할 경우 조합 체계와 일반 운영

체계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구체적 방안이 필요함.

3) 원장의 운영 권한과 책임, 조합원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영유아, 교사, 부모, 원장 등 이해당사자의 권익과 운영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함.

4) 특히 현재 교사의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것과 어린이집에는 맞벌이 가정이 많다는 점은 어린이집 운영과 협동조합 운영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필히 고려해야함.

5.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적 경제를 보다 폭넓게 정의할 때 비영리시설인 어린이집도 포함된다고 보며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들이 지닌 원칙들은 이윤보다는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해를 위한 목적**, 독립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이윤의 분배에 있어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우선권 등이다. (Jacques Defourny, 1992)

6. 문제가 무엇인가?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 본 콜로키움의 주제에서 제시 : 아동학대(아동인권), 운영 비리 등의 문제
-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해(공익) : 영유아, 교사, 부모, 원장의 권익 신장
- 민주적인 의사결정 :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강화해야 함.

7.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재 운영 상황에서 문제와 대안 제시

- 위탁의 공정성 확보 : 심의 과정 및 결과의 투명성 확보
공익 심의위원 풀 마련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풀 형성/ 구 보육정책심의 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 시 10%정도 참여)
- 운영 비리 : 정기 지도점검 시 일정 비율 인근 지자체 간 교차 점검 정례화
- 아동학대 문제 : 폐쇄적인 운영 → 등하원시 일상적 개방 (신뢰와 상황 공유)
(서울 국공립도 최대 30% 등하원시 개방되고 있는 상황, 육아정책연구소 연구 결과에서도 30% 정도 개방되어 있음/ 보육선진국의 개방 상황과 매우 다름)
- 구성원의 권익 신장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문제해결력 강화

1)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현재 95% 가량 조직되어 있으나 활성화되어 있는 비율은 높지 않음.

2)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반별 부모 대표 선출, 교사 대표 선출 참여

3) 지역 부모/ 교사 운영위원 협의체 구성

일상적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의 주체 → 어린이집 구성원 문제해결력 강화

4) 구 보육정책위원회 : 현재 원장, 부모, 교사, 시민사회, 행정 참여

원장 이외에 교사나 부모의 대표성이 없으며 의견 수렴 과정 없음.

특별활동비, 현장견학비 등 필요경비 결정과 위탁제 선정에만 참여하고 있음.

5) 행정과의 소통 및 문제해결력 강화 필요

자주 바뀌는 보육 공무원은 상황 파악을 하다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협의하거나 문제해결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지시 사항이나 규정을 확인하고 전달하는데 그치게 됨.

8. 영유아와 영유아의 부모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지역사회와의 연대 필요

- 동네 놀이터 및 공원 확보 등 영유아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 장애인 시설 등 후원 및 연대 / 다양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기회



9. 어린이집 운영 사례

- 일상적 개방 실시(실내 개방과 실외 놀이터에서 부족한 실외놀이 부모가 보충)

- 운영위원회 활성화/ 운영위원 부모가 선출/ 예결산 공유 등 투명한 운영
- 반별 단톡방 활성화: 불편사항 수시 건의 및 자체 논의/ 교육 위해 동영상 공유
- 운영위원회 주최 아나바다 장터 개최: 공유경제 실천의 밑거름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운영위원회
-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부모 참여: 물놀이 풀 설치 자원 봉사
- 행정 지침이 실정에 맞지 않을 때 운영위원회와 부모의 의견 개진 (당직 근무 관련, 견학 시 도시락 등)
- 운영 평가 내용 공유 철저 : 학부모 총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 장애인 시설 후원과 연대: 어린이집이 지역사회와의 연대에서 구심점 역할 가능 / 자원봉사 연계/ 상호 행사 참여(아나바다 장터, 연극 공연 등)

교육기관 공공성강화 방안

- 설립인/부모/교사/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운영

이 송 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이사)

1. 필요성

현재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개인화 및 영리화 문제를 극복하여 ‘아이 행복을 실현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민주성, 참여성, 자율성, 다양성, 신뢰성, 지역성을 유치원 운영에 결합하여 유치원 공간과 정보를 개방하고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 ①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치원의 설립목적에 대한 사회적합의 : 사회적책무성, 비영리, 공공재
- ② 운영/재정의 투명성 확보 :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체(유치원) 운영상황, 재정운용 등은 협동조합 총회의 보고/의결사안.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
- ③ 절차의 민주성 :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안은 최종 의결기관인 협동조합의 총회에서 논의, 심의 의결

2) 부모/교사 등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장이 일어난다.

유치원의 개인화와 영리화를 막고 ‘아이의 행복 실현’이라는 유치원 본래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참여, 자율, 신뢰’를 토대로 한 주체들의 성장이 필요하다.

① 유치원 등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선 교육기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부모/교사가 ‘대상’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민주적, 협력적 의사소통구조와 문화 만들기

설립인들과 부모, 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의 수평적인 소통구조와 내용을 만들어 간다.

▶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유치원을 개인화하지 않고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을 이

루기위해서는 유치원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립주체를 ‘법인화’하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고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안들을 ‘구성원들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민주적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협동조합은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를 비롯, 정관, 각종 규정, 규약들이 있으므로 이 구조와 규정들을 활용하면 민주적운영이 가능하다.
- ▶ 이 과정에서 설립자/부모/교사 등 주체들은 성장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 교육기관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2. 방향

1) 아이, 교사, 부모의 인권이 실현되는 유치원

참여를 통해 교육의 주체로 서는 과정에서 아이, 부모, 교사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상호적인 책무성을 갖는다.

2) 당사자인 부모/교사의 참여와 협력구조 만들기

- ① 참여의 기반이 되는 ‘부모회’ 구성
- ② 협력적교사회 : 교직원들의 상호장학으로 전문성 강화와 교사로서의 집단적 성장
- ③ 유치원 '운영위원회' 의무화 및 활성화
 - 교사와 부모 외 지역사회의 일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 안건의 심의/의결권 부여 : 민주적 의사결정권 확대

3) 민주적 운영원리가 실현되는 유치원 : 민주적/수평적 소통구조와 의사결정구조 확립

- ① 운영체(협동조합)와 유치원의 협력관계 만들기.
협동조합 이사회/ 협동조합의 소위원회/ 유치원 원장/ 유치원교사회/ 유치원운영위원회 등 각 조직의 역할 설정과 협력/소통구조 만들기 : 주체들의 참여, 자율성, 민주성, 협력에 기반한 역할 설정과 구조

4)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마을구성원으로 살아가기

- ① 유치원 운영, 교육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 모색
- ② 운영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민자치활동, 마을공동체활동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

3.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의 전제조건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주체 형성

- ▶ 설립 경로 다양화 : 유치원 운영체인 협동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교사/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
- ① 지역의 교육전문가, 교사, 부모들이 협력하여 설립하는 경우
- ②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 ③ 교사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는 경우 등
- ▶ 설립주체들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합의와 교육이 설립과정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함

2) 유치원 시설의 안정성 확보

- ② 협동조합의 출자금만으로는 유치원 공간마련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음.
협동조합 설립 시 유치원 부지마련을 위한 (높은) 출자금은 부모와 교사들의 조합 가입과 설립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출자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③ 정부 부지의 영구 또는 장기임대, 무상 혹은 저리대출 지원 필요
- ④ 폐원 유치원 부지 정부 매입. 협동조합에 장기, 저리 임대.

※ 협동조합유치원 모델 만들기 민관협력방안

지자체 (유휴공간 제공, 무상, 장기임대, 저리대출 등으로 안정적 부지의 확보) +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지역사회의 협력(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관,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협력)

- 정부(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 시설지원, 관련 법령 정비, 지원의 인프라구축
- 유치원운영 주체형성 : 부모, 교사,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하여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설립 지원 :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교육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
- 초기운영/경영컨설팅과 교육 : 교육부, 교육청, 전문교육단체 등의 지원과 협력

3)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유치원 운영방식의 연계 : 초기 설립/운영 때부터 운영원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설계

4) 당사자들의 참여와 상호협력관계 만들기

- ① 부모의 조합원 가입과 교사의 조합원 가입 : 조합원활동, 이사회 참여
- ② 일상적인“참여”구조 확보 : 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모회구성
- ③ 부모회 : 부모교육, 가족행사 등 스스로 기획, 실행.

④ 협력적교사회

⑤ 운영체(협동조합)와 유치원의 협력관계 만들기.

협동조합/ 협동조합이사회/ 유치원운영위원회/원장/교사회/부모회의 상호협력관계 형성

⑥ 원장/교사 채용 시 인사의 공정성 확보

※사례: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린이집운영 유형

유형구분	위탁체/운영체 성격			
	생협계열	복지/사회적기업계열	교육계열	보육계열
사회적경제조직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 아이쿱양천 - 한살림서울생협 -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 도우누리사협 - 한국아동국악협회(사회적기업)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 친해교육사협	- 노원어깨동무사협 외 10곳 - 성남함께키움사협 외 6곳 - 인천좋은시민공사협 - 산마루공사협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 신설 국공립은 사협에게만 위탁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노원구(1년 이내 사협전환 조건)		- 사협설립&위탁체변경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화성시	
어린이집 구성원이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서대문구 산마루공사협	노원구 사협들	성남시 사협들	
	- 부모,교사 중심으로 설립 - 컨설팅+내부동력 - 구성원 전원 조합원 가입	- 원장,교사 중심으로 설립 - 지역 인적자원 활용 - 점차 부모 조합원 가입	- 원장, 교사 중심으로 설립 - 생협,공동육아 등 협동조합 경험자 중심 - 점차 부모 조합원 가입	
어린이집 구성원이 보육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직접운영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보육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조합	
	- 협동어린이집 운영 - 초등방과후 운영 - 전국 40곳	- 협동어린이집 운영 - 보육사회적협동조합 - 초기 혼란기에 일반 협동조합 일부 진입 (최소 3곳 이상 사협 전환 필요)	- 협동어린이집 운영 - 전국 120여곳	

한국과 서울의 학교협동조합 현황, 스페인 협동조합 학교 GSD가 주는 시사점

주 수 원 (전국학교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책위원)

1. 들어가며

서울에서 스페인 협동조합 학교 GSD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 GSD와의 인연은 지난 10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페인은 빌바오 근처의 바스크에 위치한 협동조합 집합체 몬드라곤으로 유명한 곳이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협동조합의 성지순례처럼 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성공한 협동조합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했던 곳은 몬드라곤을 처음 설립한 호세마리아 신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협동조합 학교를 세운 일이란 점이다. “협동조합주의는 교육적 수단을 활용하는 경제운동이며, 또한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교육운동이다”라고 말하며 협동조합을 교육운동 측면으로 강조한 이도 호세 마리아 신부이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스페인을 다녀왔지만 이러한 교육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다 우연하게도 GSEF에 참가한 협동조합 학교 GSD의 국제교류 팀장 Jorge를 만나게 되어 교류를 하게 되고 2박 3일 동안 마드리드의 협동조합 학교를 탐방하게 되었다. Jorge는 한국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교류를 하고 싶어했다.

사실 스페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말레이시아에 학교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여러 차례 우리나라에도 기사로도 소개되었고 많은 이들이 탐방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페인 GSD가 갖는 특이점은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협동조합으로 만들었고 30년 시간이 지나면서 스페인 뿐만 아니라 코스타리카, 카메룬까지 확대되어 8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학교협동조합만해도 2008년 이후 등장했고 정부의 학교 민영화 정책과 맞물리며 여전히 정책적인 흐름에 변동하고 있는데 반해 스페인 GSD는 지역의 필요에 부응해 자생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 학교를 만들고 오랜 시간동안 튼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상력의 확장을 가져온다. 특히 최근 들어서 사립 유치원의 비리로 인해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적극적으로 논의되는만큼 GSD와 같은 협동조합 학교가 먼 나라의 얘기만은 아니다.

아무쯁록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의 확장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사회적 소유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

2. 한국, 서울의 학교협동조합

한국의 학교협동조합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의 풀무학교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의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공교육 안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으로 보면 2013년 서울 영림중, 경기 성남의 복정고등학교부터 시작된 흐름을 언급할 수 있다. 학교협국제협동조합연맹의 정의(ICA)를 활용하면 학교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주희·주수원, 2014). 서울시에서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2015.10. 8. 조례 제6048호)에서 사용하는 정의도 이와 같다. 다만 조례상의 정의에서는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라는 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의 법인은「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는 학교협동조합보다 교육협동조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은 가장 먼저는 학교 안의 매점, 방과후, 교복, 수학여행 등 다양한 소비에 있어서의 독과점으로부터 파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등장했다. <먹거리 X파일>에도 등장하듯 시중에서 유통되는 매점의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위생적인 경우가 많다. 아무리 집에서 몸에 좋은 먹거리를 먹여도 학교 매점에서 불량식품을 먹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냐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모여 함께 매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창업모델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2013년 단 2개로 시작했던 학교협동조합은 2018년 1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84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났다. 서울에도 앞서 소개한 영림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24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전국 지역별 학교협동조합 현황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전남	전북	충북	충남	합계
개수	10	29	6	1	1	1	0	2	24	0	0	3	0	2	3	2	0	84

무엇보다도 학교협동조합은 미래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이들의 65%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갖게 될 전망을 내렸다. 단순반복적인 육체노동 관련 기술, 단순 지식에 기반한 인지적 기술

을 요구하는 직업은 대폭 줄어들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분석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은 이미 상대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 포럼에서는 ‘21세기 기술’이라는 이름 아래 16가지 핵심기술을 제안함. 문해와 수해 능력과 같은 ‘기초 기술’도 있지만 협력·창의성·문제해결력 같은 ‘역량’, 일관성·호기심·주도성과 같은 ‘인성’도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술이다.

서울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미래사회의 대비와 연계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서울교육>에서는 2016년 가을호 특별기획의 주제로 <미래교육>을 다루며 이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당시 교육혁신과 김윤경 장학관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창의성,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육성”을 강조하며, “학생의 활발한 수업참여, 상호작용, 협력적 학습이 가능한 수업 모델” 등을 미래학교의 상으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도 작년과 올해 진행된 『미래학교 체제 연구: 학습자 주도성을 중심으로』(조윤정 외, 2017), 『미래사회의 마을교육공동체발전방향』(김영철 외, 2017), 『지역기반 미래학교 운영모델 탐색: 여주 지역사례를 중심으로』(남미자 외, 2017), 『경기미래교육 기초연구』(김기수 외, 2018) 등까지 미래교육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과 경기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 학습자 주도성 강화, ▲ 프로젝트 중심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등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과 연계된다. 아예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외국 문헌도 있다. 벨기에의 ‘학습 및 재설계를 위한 연구실(learning and redesign lab)’이 소개하는 미래학교의 모습이다. 여기서 2030년의 학교는 ‘학습공원(learning park)’이나 ‘학습마을(learning village)’이란 용어가 더 어울릴 것이라고 한다. 연령에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서로로부터’ 배우는 장소가 될 것이라 한다. 더불어 미래학교의 운영 방식은 “매우 민주적이며 협동조합과 흡사할 것”이라고 이 연구는 결론짓고 있다.

3. 학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학교로 확장

현재 한국의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안의 소비사업 그 중에서도 매점에 국한되어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필요성과 가장 맞물려 있으며 사업모델이 명확하고 학생수가 600명이 넘어가는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생생한 경제교육 체험이 가능하고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먹거리 판매로부터 시작해서 공정무역, 지역과의 상생경제, 사회적경제까지 다양한 연계점이 이뤄지며 그 안에서 많은 교육적 가치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단순히 매점에만 그치지 않고 학교 안의 또 다른 교육경제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협동조합의 의미는 더욱 확장될 필요가 있다. 바로 앞서 얘기한 미래학교의 모습으로서이다. 스페인 협동조합 학교 GSD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다. GSD가 위치한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수도인데, 20세기 전반 내전이 끝난 후 갑작스레 도시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1985년 교사를 중심으로 18명이 모여 학교 설립을 준비했다. 지역의 필요에 교사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더불어 협동조합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1개의 학교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의 필요에도 대응하고 최근에는 코스타리카와 카메룬에도 GSD 방식의 협동조합 학교를 설립해가고 있다. 발표자료에도 나오는 호세 마리아 신부의 "We have been given the capacity to transform the World into a better place more than merely contemplate it."의 얘기처럼 문제를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힘을 모으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

협동조합 학교의 운영은 어떻게 다를까? 아이들에게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우선적으로 가르친다. 운영에 있어서도 소수의 사립 학교 운영자가 아닌 대부분의 교사가 조합원이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따른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2만5천 유로(약 3200만원)를 출자금으로 내야 한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지만 교사들이 공동 주인되기에 주저하지 않고 대다수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이다. 마드리드의 상위 사립학교가 한달에 700유로(약 90만원)를 내는데 반해, GSD는 5분의1 수준인 140유로(18만원)를 내고도 사립학교와 비슷한 수준의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초부터 지역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이념으로 세워졌기에 지속가능한 경영 못지 않게 공공성이 매우 중시된다. 이들이 마련한 해법은 학교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직원들은 교대로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학교를 운영한다. 통상 일반 학교 수업이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다. 아침 일찍부터 운영되는 건 맛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침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후 5시 반부터 8시까지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8시 이후 시간엔 어른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부가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은 협동조합 학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협동조합 학교가 먼 나라의 일일까? 그렇지 않다. 먼저 교육부도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해 지난 9월 학교협동조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설령 협동조합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더라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 운영모델을 택하고 있는 대안학교들도 많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사회적협동조합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11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익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이제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의 주인되기를 결심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시설 임차료 사용료 경감(50%)을 받아 유치원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새로운 학교 모델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앞서의 미래학교처럼 “매우 민주적이며 협동조합과 흡사”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협업해서 향후 이들이 사회적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일을 배워갈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 새로운 학교모델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천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고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새로운 길이 한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윌리엄 깁슨의 말대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미래교육은 플립러닝, 배움의 공동체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닌 체험과 문제해결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혁신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이름으로 변주되어 이미 실행되고 있다. 다만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협동조합 학교 역시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미래교육이다. 이미 와있는 우리의 미래가 널리 흩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루쉰의 말을 인용해본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학교협동조합, 협동조합 학교는 조금씩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보육과 교육의 시장을 넘어 상상하는 돌봄 공동체의 내용과 형식

하 태 옥 (건신대 대안교육학과 교수)

다른 나라의 정책을 참고하는 일(Policy Borrowing)은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일이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영감과 실천의 상상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그 것이 생겨나고 시행되기 까지는 항상 그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게 만드는 그 사회의 고유한 맥락이 있다. 그 맥락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의 정책을 기계적으로 수입해서 전혀 다른 사회적 맥락위에 던져놓을 때 그 정책이 가진 의미나 가치는 기화되고 만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놓인 원래의 맥락을 꼼꼼하게 살피고 우리의 맥락과 연결시키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는 유사 실천들을 발굴하여 해외 사례의 맥락과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선 짚고 싶은 것은 보육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복합적인 사안이라는 점이다. 그 안에는 아동의 문제, 부모의 문제, 돌봄의 문제, 가족의 문제, 교육의 문제, 여성의 문제, 복지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행정의 문제 등등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이토록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풀어내 보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매우 용감하거나, 혹은 무모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매우 어려운 과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어려운 일이니 잘 안될 것이라는 비관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뜻은 물론 아니다. 다만 보다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행정의 칸막이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가 보육 문제에 대해 가진 모든 칸막이들을 제거하고 아동을 중심에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 중심적 접근이다. 최근 들어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요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만은 아닐 것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것만이 유일한 대안이기에 때문이어서 일지도 모른다. 자본주의의 극대화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강화해왔다. 이는 그 어느 분야보다 가장 인간중심이어야 할 보육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내가 구매한 보육/교육 상품의 ‘가성비’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고가의 보육/교육 상품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양극화되기 시작한다.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교사들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들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보육/교육을 상품화 하면서 그 서비스에 대한 지불가치를 당연하

게 요구하는 태도와도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복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보육서비스는 기회의 제공만이 중요한 핵심일 뿐 그 내용적 문제는 깊숙이 논의되지 못한다. 이런 상품화 경향을 통해 보육/교육의 핵심인 사람과 관계의 가치는 희석된다. 따라서 문제를 바라보는 핵심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다시 사고와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내용중심의 고민이다. 여전히 정책은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와중에 보육과 교육의 내용은 논의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대학입시 개편에서부터 보육기회 보장까지 논의의 초점은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인가에 맞춰져있다. 우리가 어떤 보육과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생략되고 언제 논의되었던 것 아닌가 싶은 아련함만 남았다. 이런 경향은 심지어 최근의 마을(교육)공동체 논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선언과 정책 속에 실제 공동체와 그 지향,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은 온데간데 없고 예산과 지원금, 행정과 실적만 남는다.

이런 맥락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례는 대전 용두동에서 실천되고 있는 <육아정(育兒庭) 어린이뜨락>이다. 동네에 위치한 대학에 전임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그 동네의 주민이 되었다. 걸어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동네에서 유모차를 끌고 배회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눈에 띄었다. 동네를 조금 넘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 공동체 ‘뜨락’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들 다르게 키워보고 싶지만 경단녀, 독박육아, 교육시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선택지는 보육기관에 육아를 위탁하거나 ‘문센(문화센터)’을 전전하며 교육상품을 구매하는 양단간 결정밖에 없었다. 어느 쪽이든 육아와 교육은 ‘상품’과 ‘위탁’의 대상일 뿐 양육자와 아동이 주체로 서는 플랫폼은 찾아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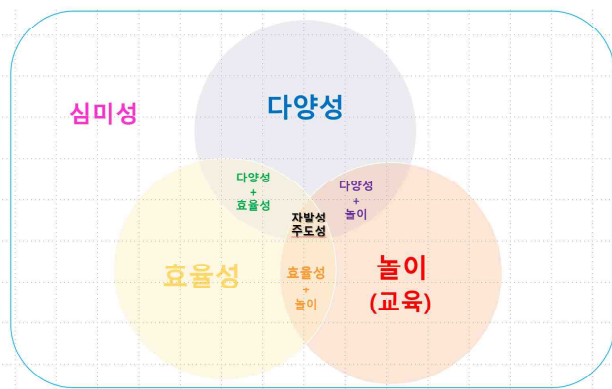
동네마다 노인들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노인정(老人亭)이 있듯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 누구든 아무 때나 아이와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육아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다만 그것은 집(亭)이 아니라 함께 가꾸고 뛰놀 뜰(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육아정(育兒庭)이라는 이름을 생각해 내었다. 아파트와 빌라로 가득찬 이 동네에서 Kindergarten(어린이의 정원: 유치원)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던 프로벨이 말한 것처럼 이곳을 찾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정원이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유학시절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큰 도움이 되었던 드롭인센터(Drop-in Centre)를 모델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18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가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공약을 급조했고, 이후 ‘공

동육아 나눔터'라는 정책으로 만들어진 바 있다. 그러나 공동육아 나눔터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다가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센터의 공공버전'으로 제도화 되고 집행되었다. 무엇보다 육아를 고민하는 주체적인 공동체가 기반이어야 했다. 부모육아자조모임이던 '뜨락'을 협동조합 '어린이뜨락'으로 개편하고 주중에는 비어있는 지역교회의 영유아실을 빌려 정기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지역대학은 사업 중심이 아닌 전문성 지원으로 결합했다. 하지만 공공체를 만드는 데는 서툴렀고 전용공간이 아닌 더부살이는 한계가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역교회가 전용공간을 내고 뒤늦게 지자체도 힘을 보태기로 되었다. 그 공간을 만드는데도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참여했다.



전용공간의 확보는 단순히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양육자들과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따뜻한 공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탐험과 모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보육과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놀이를 만드는 주체가 된다. 모든 놀이감들은 교육적으로 마련되고 구성되었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스스로 직접 꺼내고 만지고 조작하고 되돌려놓을 수 있도록 배치되었다.





아이들이나 엄마들에게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모객-프로그램 소비’로 이어지는 단발적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아이들 역시 프로그램의 참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놀이를 기획하고 즐기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어른들은 ‘엄마표 수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아이들이 만든 놀이를 확장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조력자로서 위치를 세웠다. 양육자들은 내 아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바로 옆 대안학교의 청소년과 청년 교사들과 함께 만드는 세대통합 프로젝트들도 생겼다. 물론 여전히 공동체를 강화하고 협동조합의 가치를 자리매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숙제로 남아있지만 첫 단추는 끼운 느낌이다.



마을마다 육아정이 세워져서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단순한 수사에

머물지 않도록 관계망의 가능성이 열리기를 기대해본다. 또 한편으로는 공간구성과 운영체제를 매뉴얼 화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육아정 모델을 확산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에 대해

최 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의원)

-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 대표되는 사립유치원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강조하면서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유아학교인 유치원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주장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유아교육법 등의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오후 돌봄’과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대안으로 ‘매입형’, ‘공영형’, ‘사회적협동조합형’ 등의 대안적 방식의 유치원 운영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라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사립유치원 문제는 유아교육이라는 공교육 영역에 영리추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사립유치원은 초·중고 사립학교와 달리 법인이 아닌 개인설립자가 생계를 위해 설립·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한다거나 사립유치원을 국가 또는 교육청이 매입한다는 것은 결국 유아교육을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형의 경우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출산을 저하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공적 지원 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성, 지속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따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를 통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 왜냐하면 이미 유아교육은 영유아보육과 동일한 공통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 그 재원 역시도 국가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리과정과 유사하게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경제 선진국에서도 유아교육을 이미 실질적인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2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취학 전 아동교육·보육과정도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0~2세의 영유아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통한 보육과정으로 단일화하고, 3~5세는 현행 누리과정 중심의 유아교육을 중심으로 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재편하여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구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교육구조와 체계로 재편될 지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유아교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책임성을 강조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와 같은 국공립유치원 확충이라는 시설·운영적 측면에 집중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라는 인식과 교육의 비영리성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